

토지주택공사의 '황포'

서민 임대아파트, 임대료 교박 올려받고 보수공사는 나몰라라

이용섭의원 국감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이상된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매년 올려받으면서도, 보수 공사는 외면하고 있는 등 '집값사'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벽지나 장판 등을 보수하도록 하는 등 '집값사'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들과 작성하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6년마다 벽지·장판·전등기구·콘센트 등을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에서만 4천 854가구가 계약서 규정대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 경우 ▲1993년 입주한 광주 두암4단지 영구임대(1천133가구) ▲ 광주 운남1단지 공공임대(1997년 입주·476가구) ▲ 광주동림 2단지 공공임대(1998년 · 535가구) 등 모두 2천144가구에 이른다. 전남도 ▲여수시 문수동 영구임대(1993년 · 1천403가구) ▲여수시 미평동 영구임대(1992년 · 537가구) ▲여천 무선1단지 영구임대(1995년 · 298가구) ▲ 목포연산 1단지 공공임대(1995년 · 476가구) 등 2천714가구에 달한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2.3%씩 인상해 부과해 왔다. 광주시 동림 2단지 16평형의 경우 2005년 월 17만1천690원의 임대료를 2006년에는 17만5천630원으로 2.3% 올려받았는데 이어 20평형과 22평형도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부과

했다.

이용섭 의원은 "계약서대로 임대료는 매년 올려 받으면서 벽지·장판 등 보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황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는 "해당 규정은 지난 2005년 계약서가 바뀌면서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전에 입주한 주민들의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또 지난 2007년 1천400가구, 2008년 500가구, 2009년 현재까지 1천375가구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 매년 오래된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또 "이 의원이 지적한 7개 단지의 경우 지난달 공사를 실시, 오는 2010년 10월까지 보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속 재테크

우리집 지켜주는 집 보험 인기

화재·도난·가정사고 원스톱 보상

월 1만~3만원 내외 저렴한 가격에 위험 대비

가전품 수리비·카드 분실 피해도 위로금 보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가정종합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뜨겁다. 집 보험이 뜨는 이유는 화재·폭발·붕괴·도난·가정생활 배상책임 등 기존의 전통적 위험은 물론 실화 배상책임까지 집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이전과 달리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집 보험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삼성화재가 지난 7월 출시한 '에니홈종합보험'이다. 이 보험은 출시 2개월만에 3만 여건이 넘는 계약고를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

하면 합선이나 가스불 같은 가벼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일어난 불이 다른 집으로 옮겨 불을 경우 최고 5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예금인출 피해는 물론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단전사고나 현관 잠금장치 수리 등의 긴급 수리비용 보상도 받는다. 가입 고객에게 법률·세무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국내 최고의 해충방제기업인 '세스코'와 제휴해 집안의 바퀴벌레, 개미 등을 제거하는 해충방제서비스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에니홈종합보험은 가정생활의 위험에 대비하고는 싶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층을 위해 '순수보장형 소멸성 보험'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보험료는 월 1~3만원 내외로 저렴한

집·사업장 보험 비교

| 상품 | 보장범위 | 분류 |
|----------------|--|-----|
| 삼성화재 에니홈종합보험 | - 경과실로 인한 실화배상책임 최고 5억까지 - 인터넷 해킹 손해 - 가전제품 안전사고·잠금장치 등 긴급수리비용 - 법률·세무상담, 해충방제 할인 | 집 |
| 메리츠화재 스위트홈종합보험 | - 보이스피싱 피해 - 신용카드 도난·분실 피해 - 유과·강력범죄 사고시 위로금 지급 | 집 |
| 삼성화재 에니비즈종합보험 | - 사업장의 재산손해 - 사업장 업무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 -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손해 - 위조지폐로 인한 손해 | 사업장 |

다. 메리츠화재도 도배·장판 교체 비용까지 보장하는 '스위트 홈 종합 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전화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과 신용카드 도난·분실 피해 보상에다 유과·강력범죄 사고에 대한 위로금도 보장한다. 집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장 보험도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화재가 지난 달 9일 내놓은 '에니비즈종합보험'은 음식점·약국·속박업·헤어샵·오피스 등 5개 업종으로 나눠 각 업종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맞춤형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신체손해는 물론 배상책임까지 보장된다. 고객한테 위조지폐를 받아서 입은 손해도 보상이 되고 강력범죄 수습비용도 보상범위에 포함돼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가정과 사업장 안전은 원스톱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토지주택공사 도덕적 해이 지나치다”

통합후 개혁 외면 직원 복지만 강화 정희수 의원 “신도 놀랄 지경”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이 두 공사 시절에 비해 직원들에게 한층 더 유리한 쪽으로 변경돼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새 사규는 해외 주재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주재국 인근 국가로의 '전직 휴가'를 인정하면서 왕복 항공

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사는 또 가족을 동반하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 현지의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에 따라 인근 국가에 가족을 거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

옛 토지공사가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금'도 주공에는 없던 규정이지만 토공 사규가 준용돼 통합공사 사규에 추가됐다.

직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기

간도 토공과 주공 중 유리한 쪽으로 수정됐고, 명예퇴직 최소 근무 요건도 토공은 10년, 주공은 7년인데 통합공사는 주공 사규에 따라 7년으로 바뀌었다. 주공에 없던 희망퇴직 규정도 토공에 있다는 이유로 통합공사에 추가됐다.

정 의원은 "통합공사가 이전 토공과 주공의 사규 중 직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규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신(神)도 놀랄 직장으로 변모했다"며 "통합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지나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울패션위크 20일 오후 학여울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서울패션위크 S/S 2010' 디자이너 양성숙 쇼에서 모델들이 위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 수익?

실전투자 평균수익률 저조 불구 증권사들 장밋빛 환상만 심어줘

증권사 실전투자대회가 '대박실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전투자대회의 1등 수익률은 최고 1천%대에 달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대부분 코스피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금융상품을 소개한다는 취지를 넘어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증권사들이 진행한 실전투자대회의 평균수익률은 대부분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 상승률을 밑돌았다. 일부 대회는 '마이너스' 평균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다. 코스피지수는 작년 말 대비 46%, 코스닥지수는 53%가량 올랐다.

6~8월 한국투자증권이 개최한 대회에서 평균수익률은 7.28%였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에셋증권의 대회에서는 평균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이트레이드증권이 4~5월 진행한 투자대회에서도 주식 부문 평균수익률은 0.15%로 '제로'에 가까웠다. 우리투자증권의 대회는 평균수익률이 20%대로 그나마 선방한 사례다.

증권사별 실전투자대회 수익률

| 증권사 | 대회부문 | 최고수익률 | 평균수익률 | 참가인원 |
|------------------|---------------|---------|-------|--------|
| 한국 (6.22~8.14) | 명칭(주식) | 1,296.4 | 7.28 | 8,072 |
| | 한국인(주식) | 662.0 | | |
| 동양증권 (3.2~4.24) | 주식 | 877 | 22.95 | 6,879 |
| | ELW | 2,042 | | |
| 우리 (3.16~5.8) | 듀엣(주식) | 445.12 | 21.79 | 10,024 |
| | 싱글(주식) | 384.78 | 20.45 | 7,473 |
| 미래에셋 (6.15~7.24) | MAPS 2000(주식) | 492.7 | -0.1 | |
| | MAPS 500(주식) | 123.8 | -3.3 | 9,100 |
| | ELW | 2,542.2 | -8.4 | |
| 이트레이드 (4.1~5.29) | 주식프로 | 278 | 0.15 | |
| | 주식스타 | 111 | | 6,900 |
| | ELW | 352 | - | |

반면 최고 수익률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명장리그(예탁자산 2천만원 이상)에서는 1등 수익률이 1천 296.4%에 달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산전수전' 겪은 고수라는 점에서 초단타 거래나 대주, 미수 등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